

유엔인권고등판무관,유엔인권리사회 의장 앞

세상에 폭로된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당국은 정보기관강패들을 동원하여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우리 여성종업원 12 명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치떨리는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12 명 피해자들의 부모들이며 유인랍치된 리은경,한행복,리선미,리지혜,리봄,김혜성,류송영,전옥향,지정화,박옥별,김설경,서경아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딸자식들입니다.

특대형의 집단유인랍치행위로 졸지에 사랑하는 딸자식들과 생리별을 당한 우리들은 피눈물속에 날을 보내고있으며 그들이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들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으로부터 남조선당국이 중국땅에 나가있던 천진한 우리 딸들을 표적으로 삼고 비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으로 끌고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해듣고는 너무 억이 막히고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습니다.

더우기 우리 딸자식들을 집단유인랍치해간 남조선당국이 지금에와서 그 무슨 《 집 단 탈 북 》 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남쪽사회에 대한 《동경의 반영》 이라고 떠들고있다니 우리들은 부모들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앗아간 짐승보다 못한 악한들을 당장 요정낼 적개심뿐입니다.

우리 딸자식들은 하나와 같이 공화국의 품에서 태어나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배우고 자라난 행복둥이들입니다.

고마운 우리 제도에서 행복만을 알고 살아온 그들이 나서 자란 고향땅과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버릴 하등의 리유도 없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낳아키운 부모들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더우기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남조선으로 간다는것은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는 순결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딸들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책동의 마수가 이제는 행복만을 알고 자라온 우리 딸들에게까지 미치고 우리들의 가정에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것처럼 밝게 웃으며 부모들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의 말을 남기며 조국을 떠나던 그 애들의 모습이 눈에 삼삼해 밥술도 뜨지 못하고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는 우리들입니다.

정보기관깡패들을 해외에 내몰아 순진하고 무고한 우리 딸자식들을 유인랍치하여 화목한 가정들을 갈라놓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이야말로 악마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딸자식들이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올때까지 남조선당국의 용납못할 반인륜범죄를 만천하에 고발할것이며 이 불법무도한 만행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인류와 국제사회의 규탄과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인권기구들이 남조선당국의 이와같은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피해자들의 소원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딸들이 극악한 테로분자들을 준렬히 단죄하면서 그리운 조국의 품,사랑하는 아버지,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결연히 투쟁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에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대변인 담화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이 강제억류한 우리 딸자식들을 부모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즉시 무조건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보호증진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유엔인권리사회가 우리 딸자식들이 하루빨리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행복하게 모여살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취해줄것을 당신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사를 포함니다.

남조선당국에 의해 집단유인랍치된 12 명의 여성피해자부모일동

주체 105(2016)년 4 월 18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일

(Translation) April, 18th, Juche 105 (2016), Pyongyang, DPRK

TO: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hairma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s already revealed to the worl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s recently committed a terrifying crime against humanity by instructing the gangsters from its intelligence service to abduct to south Korea a group of our 12 women working at a restaurant in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We are parents of these 12 abductees, our beloved daughters. They are Ri Un Gyong, Han Haeng Bok, Ri Son Mi, Ri Ji Ye, Ri Pom, Kim Hye Song, Ryu Song Yong, Jon Ok Hyang, Ji Jong Hwa, Pak Ok Byol, Kim Sol Gyong, So Kyong A.

Having lost our beloved daughters so unexpectedly due to this heinous group abduction, we are spending day and night in tears of blood and writing this letter in the hope that one day they will return home.

The moment we heard from the relevant authority of the DPRK tha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argeted our innocent daughters working in China for abduction and forcibly took them to south Korea in a despicable and cunning way, we were so shocked that we could hardly suppress our indignation.

However,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ho orchestrated the abduction, is now misleading the public opinion portraying it as "group defection" and alleging that it "reflects their yearning for south Korea".

This only adds fuel to the flames, as we only think of punishing them at once for their crime of taking away our beloved daughters.

All of our daughters were the happy girls who were born and brought up in the DPRK, fully enjoying their learning in want of nothing in the world.

We, as their parents, can say for sure that our daughters, who only enjoyed happiness under the graceful socialist system, have no reason to abandon their home and dea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Moreover, our daughters would never dream of going to such dreadful place as south Korea.

The vicious tentacles o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hose aim is to stifle the DPRK are now stretching out to our daughters who know nothing but happiness, inflicting misfortunes and suffering upon our families.

Even at this moment, broad smile of our daughters who said goodbye to us remains so vivid in our memory that we hardly have meals and go to bed at nights.

The south Korean rulers are nobody but devils for breaking apart our harmonious families by sending gangsters of its intelligence service abroad to abduct our innocent daughters.

We will continue to draw the global attention to this unpardonable crime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until the return of our lovely daughters. This unlawful and immoral atrocity should be condemned and duly punished by the huma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o value justice.

We know that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is the responsibility to conduct full investigation into this inhuman crime committed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bring those perpetrators to justice as desired by the families of victims.

We have no doubt that our daughters kidnapped to south Korea are standing firm, even at this moment, in their struggle to return to their dear homeland and beloved parents, strongly denouncing the cruel terrorists.

We are well aware that the DPRK strongly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the statements of the spokesmen for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Red Cross Society and the Committee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to send our daughters back unconditionally and without delay to their motherland where their parents and brothers are waiting for.

We kindly request the 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ose mission i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help our daughters return to their parent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whole family members can get together in happiness.

Yours Sincerely.

Parents of the 12 women victims abducted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